제14회 제주포럼 JDC 의료사업처 기획 세션 사회자 시나리오

‘힐링, 제주관광의 미래를 보다’

2018년 5월 29일

JD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HEALING HILLS
HEALTHCARE TOWN
헬스케어타운 힐링힐즈

* 제14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발표자료, 제주, 2019년 5월 29-31일, http://www.jejuforum.or.kr/m21_program.php?year=2019

■시나리오■

<5.29(수) 15:20~16:50(90분) /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201B호>

시간	시 나 리 오
15:20	1. 지금부터 '힐링, 제주관광의 미래를 보다' 를 주제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휴대폰은 매너모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안녕하십니까. 금일 본 세션의 사회를 맡은 JDC 의료사업처장 김기영입니다. 우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발표자분들과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3. 먼저 세션 진행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표자는 총 두 분이며, 한 분 당 15분씩 발표를 하겠습니다. 곧바로 약 30분 간 토론을 거쳐 10분 간 질의응답 후 세션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세션 운영시간이 정해진 관계로 질의응답 시간에 모든 분들의 질문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 드립니다.
	4. 발표는 한국어와 일본어로 진행되며 영어를 포함한 세 가지 언어로 통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는 1번, 영어는 2번, 일본어는 3번 채널입니다. 좌석에 놓여있는 통역리시버를 이용하여 적극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그럼 오늘 진행을 맡아 주실 좌장과 발표자 및 토론자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신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김철민 교수님입니다. (김철민 교수 인사). 김철민 교수님은 부산대학교 항노화산업지원센터의 설립자로,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항노화 산업 모델을 제안·추진하고, '부산국제항노화 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힐링, 제주관광의 미래를 보다' 세션을 통해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주의 미래산업으로서 힐링산업의 발전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예정입니다. 다음은, 힐리언스 선마을 CEO, 송인수 대표님입니다. (송인수 대표 인사). 송인수 대표님은 웰니스, 힐링, 항노화 서비스 사업 분야 전문가이십니다. 송대표님이 경영하고 계시는 "힐리언스 선마을"은 고령화 시대 핵심 관심들을 비즈니스 모델로 실현한 사업으로, 대한민국 최초 자연치유센터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정 받았습니다. 오늘은 국내 벤치마킹 1호로 거론되는 힐리언스 선마을의 성공적인 운영전략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제주형 웰니스·힐링 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해 제언해 주실 예정입니다.

	다음은, UBM 재팬 다이어트&뷰티 편집장이자 사무국장이신 에부치 아츠시 편집장님입니다. 편의상 편집장님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에부치 아츠시 편집장 인사). 에부치 아츠시 편집장님은 일본 내 항노화 분야 전문가로서, 항노화/힐링 관련 각종 박람회와 전시회 등 행사를 주최하고 계십니다. 특히 일본 내 웰니스 산업을 확립하고 미용·건강의 비즈니스 활용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각종 회의체와 인증제를 운영하는 등 일본 항노화 산업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일본 웰니스 시장의 현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남대학교 건강항노화센터장이자 한국항노화협회 사무총장님이신 김현준 교수님입니다. (김현준 교수 인사). 김현준 교수님은 2013년부터 건강항노화센터장으로 활동하며 힐링 항노화 서비스 지원사업, 웰니스관광클러스터 및 관광상품개발 사업 등 주로 국가 및 지역에서 출연한 건강사업을 이끌어 왔으며, 특히 지역 자원과 연계한 건강 관광 개발 연구를 위해 힘써오셨습니다. 오늘은 교수님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형 힐링 산업의 발전 방향과 방안에 대해 논의해 주실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신은규 교수님입니다. (신은규 교수 인사). 신은규 교수님은 보건행정학 및 보건산업의 진흥을 위해 관련 국가 프로젝트와 각종 연구를 주도해 왔으며, 특히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관광, 지역 자원과 연계한 의료서비스 개발을 위해 힘써오셨습니다. 또한 헬스케어타운 사업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교수님의 산학계를 넘나드는 경험으로 제주도 의료관광과 헬스케어타운의 발전에 대해 논의해 주실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JDC 의료사업처장 김기영입니다. (처장님 인사). 저는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헬스케어타운 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타운은 의료산업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으로서, 글로벌 의료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힐링·웰니스 관광으로의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이 헬스케어타운 발전을 위할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미래 먹거리로서 힐링 관광산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25	5. 그럼 지금부터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김철민 교수님 주재로 ‘힐링, 제주관광의 미래를 보다’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 시나리오 시작)

16:48 ~	6. 이상으로 ‘힐링, 제주관광의 미래를 보다’ 세션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오늘 이 곳에 와주신 패널분들과 방청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제주도의 미래산업으로서 힐링산업과 헬스케어타운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충분히 소통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 제주도 관광산업의 새로운 발걸음과 헬스케어타운 발전에 더욱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